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홍진영 종횡무진

“지금이 나의 전성기!”



‘우결’·‘트로트엑스’에서 활약 ‘내 나이가 어때서’ 신곡 발표

대중은 자신의 스타가 솔직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런 솔직함은 스타가 지닌 환상의 힘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대로의 자신을 편하게 드러냈더니 비로소 대중이 자신을 바라봐주기 시작한 경우라면 어떻게 한 사람의 개성과 대중의 바람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무척 행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매력을 뽐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홍진영(29)의 이야기다. 그는 노래 ‘사랑의 배터리’(2009) 시절에 이어 찾아온 ‘제2의 전성기’를 누리려는 소감을 묻자 “아니다. 이제 첫 전성기가 오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밝게 웃었다. “물론 일정상 많이 바빠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든 면도 있죠. 하지만 항상 (활동에) 목마르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또 제가 건강식품도 많이 챙겨먹어요.(웃음)” 2007년 걸그룹 멤버로 데뷔한 홍진영은 솔로 데뷔곡 ‘사랑의 배터리’로 대중에게 널리 이름을 알렸다. “과거 방송에서 열 시간 동안 말 한마디 못하던 때도 있었죠. ‘입만 열면 깡다’고 해서요. 그런데 ‘라디오 스타’에 처음 나갔을 때 친한 분들과 함께해 자리가 편했어. 그래서 수다 떨듯 방송하러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때 방송은 편하게 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고 나를 더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이어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이고 싶다. 솔직한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다”며 “내 성격대로 방송을 하며 관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진영이 현재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만 해도 MBC ‘우리 결혼했어요’, ‘세상을 바꾸는 퀴즈’, 엠넷 ‘트로트 엑스’가 있고, 최근까지 tvN ‘로맨스가 더 필요해’에서도 활약했다. 단발성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 “들면 나온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다. “‘우결’은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궁)민이 오빠도 그렇고, 서로 꾸미지 않으려 노력해요. 최대한 평소와 똑같이 하자고 다짐하죠. ‘트로트 엑스’는 도전하시는 분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매번 울컥을

격해요. 마음으로 울죠. 저도 무명생활이 길었던 만큼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최근 그가 무척 박사 학위 소지자라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가깝고 발랄한 그의 기존 이미지와 다소 배척되는 것이어서 더 뜻밖이었다. 하지만 그의 학업에 얽힌 사연을 들으니 이 이미지가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중 ‘틀리다’라는 문맥상 맞지 않는 표현을 곧바로 ‘다르다’로 바로잡는 섬세함까지 의외다. “고등학교 시절까지 공부를 안 했어요. 즐거운 학생생활이었고.(웃음) 턱걸이로 대학에 들어간 뒤 가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1학년 1, 2학기 장학금을 받으면 서울로 보내주겠다고 하셨죠. 그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는 오기와 집념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게 됐네요.” 대중은 그의 가장 큰 매력으로 예교와 솔직함을 꼽는다. 큰 웃음과 독특한 톤소리는 어느 무대에서나 그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무기다. “차가운 이미지라고 하시는데 친한 사람들은 제가 편안하다는 걸 알아요.(웃음) 그런 편안함이 큰 장점 아닐까요. 해맑게 웃는 모습도 매력일 수 있겠네요. 제가 웃으면 같이 있는 분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방송 일정으로 가수 활동이 잠시 뜸했지만 최근 드라마 오리 지닐사운드트랙(OST)곡인 ‘내 나이가 어때서’를 발표했다. 홍진영은 “음반을 1년에 한 번 내는 것 같다. 목소리와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분도 계시는 만큼 음악도 계속 열심히 해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 가사와 제목을 받았을 때 유치해서 울고 말았다는 트로트곡 ‘사랑의 배터리’는 지금의 그를 있게 한 소중한 존재다. 트로트의 의미를 묻자 “부르는 사람의 내면을 변하게 만든 음악”이라는 대답이 인상적이다. “제 삶을 바꾼 장르죠. 좀 더 절절하게 한 장르예요. 그룹을 할 때까지만 해도 철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웃음) 트로트가 저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꾸미지 않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 팬들이 앞으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연향뉴스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World News Review, EBS 문화 센터,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EBS 뉴스 7, EBS 뉴스 9,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including EBS 뉴스 8, EBS 뉴스 10,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0일(음 4월 22일 辛卯)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20th of May,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KBS 기자협회 사장 퇴진 촉구 제작 거부 돌입

PD 협회도 동참 선언... 김환영 사장은 사퇴 거부

‘청와대와 사장의 보도·인사 개입 논란’ 속에서 촉발된 KBS 사태가 19일 오후 KBS 기자협회의 제작거부 돌입 등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KBS PD협회도 이날 김환영 사장이 퇴진하지 않으면 제작거부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으며, KBS이사회 야당 측 이사 4인은 이사회에 김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또 앞서 보지 사퇴한 보도국 부장들에 이어 이날 지역총국 부장들도 일제히 보지 사퇴를 하고 사장 퇴진을 압박하고 나서는 등 KBS의 내홍이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사장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기자협회총회와 뒤이어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발언이 왜곡돼 전달됐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자리에 연연할 생각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그것(사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것보다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KBS의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에 대해 “김 국장과의 업무 무상 대화가 그런 식으로 과장 왜곡될지는 생각도 못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확대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청와대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청와대가 어디 가라고 해서 가서 하고 전혀 그런 것 아니다. 또 청와대 쪽에서 사퇴를 시키라던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전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김환영 KBS 사장이 승용차에 탄 채 노조원들에 막혀 출근에 실패하고 되돌아가고 있다. 김 사장을 태운 차량의 앞유리가 깨져 있다. /연합뉴스

부인했다. 앞서 김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팀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외압 의혹에 대해 설명하는 ‘사장과의 대화’ 자리를 갖고 오후 3시에는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KBS 양대 노조가 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펼치면서 그는 제시간 출근을 하지 못했다. 출근저지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사측 안전요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김 사장이 탄 승용차의 앞유리가 크게 파손되기도 했다. 그 여파로 ‘사장과의 대화’가 취소됐으며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오후 4시에 일부 매체만 모인 가운데 약속 회견이 진행됐다. 애초 이날 오후 6시부터 제작거부에 돌입할 계획을 세웠던 KBS기자협회는

김 사장이 예정했던 ‘사장과의 대화’와 기자회견이 취소되자 계획을 앞당겨 오후 1시께부터 바로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뉴스를 진행하는 기자협회 소속 영계들도 모두 업무를 중단했다. 김주연, 이규환, 조준상, 최영목 등 KBS 야당 추천 소수이사 4인은 이날 KBS 이사회에 ‘김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KBS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KBS PD협회도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김환영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제작 거부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또 KBS 전국 지역 취재·편집·촬영부장도 성명을 내고 김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연합뉴스